“세상 외면하는 불교는 골동품”

원각사, 청정운동법회 … 강건기 교수 강연

청정운동 광주법회가 11월 21일 원각사에서 열렸다. 원각사 산하 신행단체와 광주전남포교사단이 청정운동에 동참의사를 밝혔다.

‘깨끗한 마음 깨끗한 세상’을 기치로 전국에서 일고 있는 ‘2006 청정운동’이 빛고을 광주에서도 시작됐다.

대한불교진흥원 청정운동추진본부(위원장 송석구)는 11월 21일 광주 원각사 대웅전에서 ‘청정운동 광주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 초청법사로 나선 前 전북대 강건기 교수는 ‘내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는 주제강연을 통해 “죽어가는 세상을 외면하는 불교는 골동품에 불과하다”며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인간과 모든 생명이 둘이 아닌 하나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이를 위해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칭찬, 참회하는 청정운동 지침을 실천하자”고 말했다.

원각사 주지 도제 스님도 “마음이 청정하면 몸과 이웃이 청정하고 세계가 청정해진다는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실천하는 불자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도제 스님은 “초사흘법회를 청정운동 법회로 전환하고 매달 신행수첩을 점검하자”고 제안하고 “6개월마다 실천행이 모범인 불자에게 다양한 선물을 증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원각사 조사흘 법회 상락행 회장은 청정운동 선언문을 낭독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생활 속에 실천하는 청정운동에 각 신행단체가 함께 동참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 청정운동에는 원각사 산하 신행단체와 광주전남 포교사단 등이 동참의 뜻을 밝혔다. 이준엽 기자

백양사 신임주지 성오 스님 진산식

고불총림 백양사 신임주지 성오 스님 취임법회가 11월 20일 대웅전에서 열렸다(사진). 이날 법회에는 고불총림 방장 수산 스님, 유나 지선 스님과 전 조계종 포교원장 암도 스님 등 본말사 스님과 신도 200여명이 동참했다.

성오 스님은 “포교에 역점을 두어 다시 찾는 백양사가 되도록 혼신을 다하겠다”며 “방장스님을 중심으로 위계질서를 정립하고 산중화합으로 공개살림을 펴겠다”고 말했다. 이준엽 기자

증심사, 신도오계 수계법회

광주 증심사(주지 진화)는 11월 23일 신도오계 수계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증심사가 진행하는 신도기본교육 5기, 6기 수료생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수계식에는 신도 200여명이 동참했다.

수계에 앞서 계사 지현 스님(송광사 율원장)은 법어에서 “새로받는 불명이 빛날 때까지 열심히 수행, 봉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준엽 기자

생명나눔 광주전남 본부장 취임

제4대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 지역본부장으로 현지 스님(원효사 주지)이 취임했다(사진). 11월 17일 광주 신양파크 연회장에서 열린 취임식에는 송광사 주지 영조 스님, 생명나눔 이사장 일면 스님, 광주불교 사암연 회장 지각 스님과 사회단체 관계자, 이사,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신임 본부장 현지 스님은 “나눔과 실천을 함께하는 단체로 향후 10년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준엽 기자

“불교의식 대중 곁에 더 가까이”

전통불교영산회, 법인 설립

예향 광주를 중심으로 불교의식 맥을 잇고 있는 전통불교영산회(회장 혜령, 이하 영산회)가 법인을 설립하고 일반대중에게 불교의식을 선보인다.

지난 9월 사단법인을 설립한 영산회는 12월 11일 오후 2시 광주시민회관에서 ‘전통불교영산회 창립 13주년 기념공연’을 펼친다. 이날 공연에는 영산회원 40여명이 복청계, 천수바라, 다계작법 등 영산작법을 시연한다.

또한 이날 공연에는 영산회 법인설립을 축하해 평양민속예술단 초청공연이 함께 펼쳐진다.

영산회장 혜령 스님은 “불교의식으로 불법을 구현하고 널리 전하고자 출가 수행자들이 모여 정진하고 있다”며 “이제는 불자뿐 아니라 시민이 쉽게 전통불교의식을 접할 수 있도록 정기공연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산회는 1993년 창립이후 불교의식 정기교육과 각종 행사에서 범패 및 작법을 시연하고 있다.

특히 매년 5월 18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광주민주화운동 추모법회 위령재 및 영산대재를 봉행하고 있다(사진). 전통불교영산회:(062)263-0580 이준엽 기자

현대불교 지사안내
호남지사 : (062)375-9986
대전충북지사 : (043)732-5560

제주 법화사, 자비도량참법 정진

제주 법화사(주지 시몽)는 동안거를 맞아 12월 5일부터 90일간 ‘자비도량참법 참회정진’을 봉행한다.

법화사 대웅전에서 열리는 이법 정진법회는 새벽, 사시, 저녁예불과 함께 하루 세 차례 2시간씩 진행된다.

주지 시몽 스님은 “자비도량참법은 천불천탑을 조성한 양무제가 구렁이몸을 받은 부인 치씨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정진한 참회기도이다”며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는 참회정진에 많은 동참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진은 지난 하안거부터 법화사에서 자비도량참법 정진을 하고 있는 원진 스님이 지도한다. (064)738-5225 이준엽 기자

화엄사 스님-구례 농민 축구대회

11월 11일 지역농민과 노동자, 스님이 함께하는 친선 축구대회가 열렸다(사진).

이날 구례 화엄사(주지 종삼)는 구례 농민회, 기아자동차 노조, 국립공원 관리공단 임직원과 함께 구례읍 문척 잔디구장에서 체육대회를 갖고 친선을 도모했다.

이날 축구시합에서 강한 체력을 자랑한 구례 농민회가 우승을 차지했다. 이준엽 기자

충북불교대 현각 스님 초청특강

청주 용화사 부설 충북불교대학은 11월 29일 오후 7시 서울 화계사 국제선원장 현각 스님을 초청, ‘참나를 찾는 공부’를 주제로 특강을 연다.

현각 스님은 1991년 숭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이래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리는데 힘쓰는 푸른 눈의 납자이다. 이 특강은 일반인과 불자들에게 개방된다. (043)263-2329 혜철 대전 충북 지사장

생활 속 불교문화

함평- 고막대사와 떡다리

서산대사가 포교를 위해 지었다고 전해지는 고대가사 <회심곡>에 이런 대목이 나온다.

“~깊은 물에 다리놓아 월천공덕(越川功德) 하였는가 / 목마른 이 물을 주어 급수공덕(汲水功德) 하였는가 / 병든 사람 약을 주어 활인공덕(活人功德) 하였는가~”

이렇듯 산길을 가다 만나는 우물이나, 냇가를 가로질러 놓여진 돌다리의 대부분은 더불어 살고자했던 불자들의 원력이 담겨있다.

우리나라에서 축조연대가 밝혀진 가장 오래된 다리인 고막석교(보물 1372호 · 사진)도 그러하다.

730년 이어온 장수다리
고막대사 신통력으로 ‘뚝딱’
지었다해서 ‘떡다리’로 불려

전남 함평군 학교면 고막천에 놓여진 이 다리는 고려 원종 14년(1273) 무안 법천사에 주석하던 고막대사(古幕大師)가 세웠다고 한다. 총길이 20m, 너비 3.5m, 높이 2.5m로 5개의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돌을 우물마루형식으로 덩벙덤벙 투박하게 놓았지만 무려 730여년을 이어온 장수다리이다.

세찬 물살 속에서도 오늘까지 다리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데는 고막석교만의 특별함이 있다.

2001년 보수공사 당시 국내에서 기초가 가장 실팍한 다리로 밝혀졌다. 지반보강을 위해 나무말뚝을 촘촘히 박고, 그 위에 돌을 일정한 두께로 절묘하게 깔아 급류에 쓸리지 않도록 한 것이다. 여기에 기둥과 상판축조를 목조가구의 결구법을 응용해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단단해 지도록 했다.

이러한 기법은 현대과학이 밝힌 고막석교 축조법이지만, 지역민이 전하는 숨겨진 비법은 ‘고막대사의 도술’이다. 고막대사가 신통력으로 ‘뚝딱’ 지었다고 하여 ‘똑다리’ 혹은 ‘떡다리’로 불리고 있다.

물론 현대과학이나 지역민이 전하는 이야기도 틀린 바는 아니겠지만 ‘중생들을 피안의 세계로 건네고자 하는 고막대사의 원력’을 느껴야 고막석교의 진실은 풀린다.

고막대사가 어느 겨울 냇가를 건너게 되었다.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아랫도리를 걷거나 벗어들고 물 속을 건너는 것을 보고 원을 세웠다. 저 언덕으로 하루빨리 건너가기를 기원하며 하룻만에 다리를 세웠던 것이다. 바로 고막석교이다.

1910년대까지만 해도 쌀 100섬을 실은 배가 영상강을 따라 고막석교까지 드나들었다고 한다. 그때에도 상판에서 쌀이 한 톨도 빠지지 않는 정교한 다리였다. 아쉽게도 일제 때 보수공사를 한 후 다리가 삐걱거리고 툭하면 보수한다며 사람들의 손을 타야했다.

고막석교에 큰 배가 들어오면 장이 서곤 했다. 함평천지 넓은 들에서 나온 곡물로 떡을 해 나주와 영산포로 팔러가기도 했다. 논에서 일하던 농부들도 점심 후에는 뜨뜻하게 달궈진 돌다리 위에 누워 낮잠을 청하곤 했다. 저녁이면 물살이 세어 모기가 없는 다리가 사랑방이 되었다.

세월이 흘러 고막석교의 여유와 운치는 사라지고 아래에 있는 나주-목포간 국도 1호선이 다리역할을 하고 있다. 단지 고막석교 옆 언덕에 세워진 고막석교 유적비만이 옛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준엽 기자

광주불교방송
BBS FM 89.7 MHz
www.kjbbs.co.kr

(사)대한불교 해동종 임원공고

원로원 원장 석봉 대종사(평택 청용사)
원로원 부원장 백담(사천 백용사)
원 로 위 원 법준(광명 월성사) 정화(밀양 용광사)
법성(화성 화엄사) 승전(안성 상원사) 원심(안성 통일사)

종 정 혜봉 대종사(밀양 용정사) 사서실장 도 은(밀양 연령사)
총무원장 송산(용인 대원사) 부 원 장 도현(부산 관음사)
총 무 부 장 덕광(양주 봉덕사) 교 무 부 장 무연(창녕 법령사)
재 무 부 장 도은(밀양 연령사) 사 회 부 장 수월(용인 대원사)

중앙종회의장 보장(화성 장안사) 부 의 장 수운(창원 소원사)
중앙종회위원 지선(밀양 천수정사) 연각(양평 수도암) 백파(용인 동서양사)
이타(포항 학산사) 수진(대구 지장암) 법운(칠곡 도솔원) 송연(진해 보원사)

중앙사정원원장 대원(고성 극락사)
부 원 장 옥용(화순 벽송사)
사 정 부 장 혜암(남해 송림사)

중앙포교원원장 정화(밀양 용광사)
부 원 장 보단(상주 상주사)
포 교 원 장 진아(수원 광명사)

중앙교육원원장 공덕(대구 국제교화 해동대학원장)
부 원 장 현법(하동 청학사)
교 육 부 장 성암(마산 무우정사)

중앙복지봉사원장 무량(서울 각원사)
부 원 장 무봉(용인 무법정사)
복지봉사부장 지연(창원 법화사)

부산교구종무원장 삼자(부산 삼자선원) 경기교구종무원장 벽송(용인 화엄정사) 경북교구종무원장 혜봉(군위 지장선원)
대구교구종무원장 대원(대구 약불사) 경남동교구종무원장 지성(밀양 약왕사) 전남(광주)교구종무원장 청림(영광 삼각사)
울산교구종무원장 송암(울산 보현사) 경남서교구종무원장 혜광(진해 승원사) 충남(대전)교구종무원장 무기(부여 봉선사)

●주소 : 경기 용인시 성복동 상구 2-5호 대원사 ●전화 : 031)262-1577, 263-1353

한 국 보 리 법 문

사람은 음식을 먹고 살며, 수행자는 법열(法悅)을 먹고 삽니다. 실제 수행 중에 법열을 느끼지 못하셨다면, ‘실증실수(實證實修)’ 수련법과의 인연을 찾아야 합니다.

실제 수행을 통해 불법을 체득하고, 마음의 안정과 자유를 얻고 싶은 분들께 티베트 불교 최신 수행법을 소개합니다. 지난주 서울에서 처음 열린 수행반에 참가하신 분들은 커다란 감동과 희열을 느꼈습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참가자들은 마치 살아계신 부처님을 직접 뵙는 듯한 체험을 하거나, 그동안의 모든 방황을 쉬게 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해보면,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만일 부처님께서 이 시대에 오신다면, 우리 현대인에게 가장 적합한 수행법을 가르쳐주실 것입니다. 불법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자비와 중생들의 필요에 따라 생긴 것입니다. 이미 이런저런 수행을 해봐도 소식이 없는 분들이나 처음 명상을 시작하는 분들은 실제 효과가 있는 바른 수행법과 인연을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에서도 ‘실증실수(實證實修)’ 티베트 밀교 최신 수행법과 만날 수 있는 인연이 열렸습니다. 보리법문의 수행법은 현대인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즉각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원리는 활불(活佛)의 가피력 있는 이끄는 말씀(加被, Voice)과 현대인의 특성인 이미지 능력(禪觀, Visualization) 그리고 다이나믹한 손동작(手印, Mudra)을 통해 선정(禪定)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고, 효과도 매우 빠릅니다.

보리법문의 다이나믹 명상은 우리의 몸이 빠른 속도로 광명상태에 도달하도록 이끌어줍니다. 광명상태에 이르는 과정에서 우리의 업장이 소멸되고 병이 치료됩니다.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빠르며,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간단한 수행법입니다.

한국에 오신 티베트 불교 법사님들께서 인연이 있는 대중들을 위하여 ‘수행법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불법의 요체를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자 하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한 번 발심으로 억겁의 윤회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설 명 회 : 2006년 12월 3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 오후 1시
◆장 소 : 서울 방배동 한국보리법문 법당 (지하철 7호선 내방역 1번 출구, 브라운스톤 상가 2층)
◆문의전화 : 02)3471-9183 / 02)586-6176